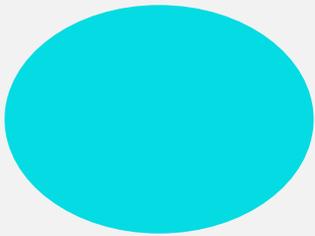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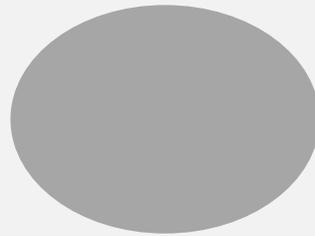
아뚜뚜 딜리 팀의 국내훈련 최종보고서



광주 Y' 이야기



1. 광주



2. 청년



3. 배움

⚠ 들어가기 전!

팀원 소개



- 나는야 쉽사빠!
- 난희 누나가 태연 닮았다고 해요
- 언어의 맵소사
- 보노보노 성애자
- 예스맨 ㅋ
- 전주 홍보대사
- 동생 바보
- 칭찬봇

윤상



정현채

- 아이들의 대통령 채스 아저씨
- 놀이 대마왕
- 빈자리가 크고 많은 남자
- 그냥 큰 남자..?ㅎ
- 마스터 정세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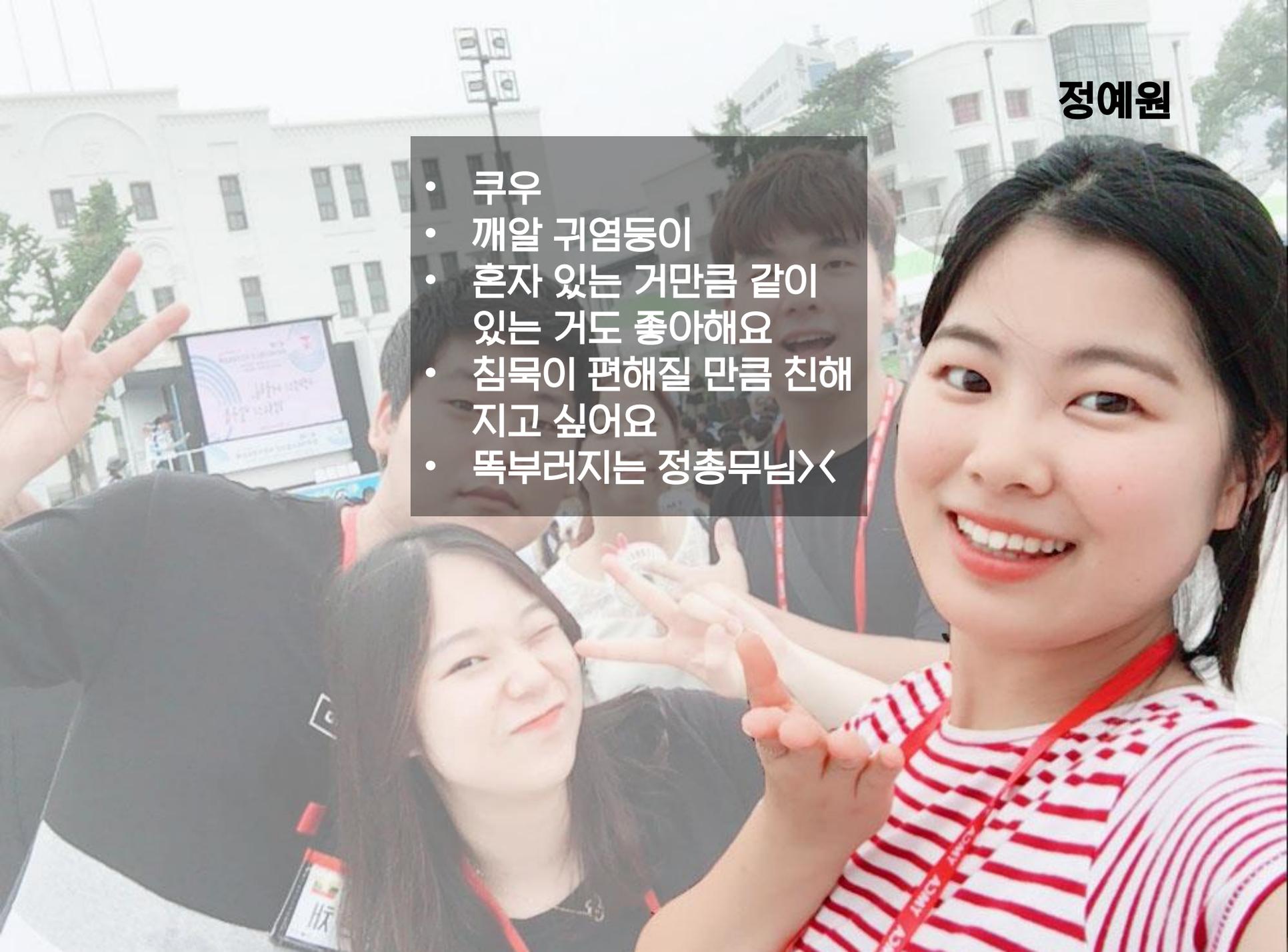


최윤영

- 귀염둥이 막내 영쓰
- 보거스
- 미잘알
- 만화가 아저씨 ㄸ
- “나보다 더 잘 그린다”
- 상쓰가 나의 친구들을 탐낸다...!

정예원

- 쿠우
- 깨알 귀염둥이
- 혼자 있는 거만큼 같이 있는 거도 좋아해요
- 침묵이 편해질 만큼 친해지고 싶어요
- 똑부러지는 정총무님><





에스더

- 포미닛 권소현
- 피곤해도 물을 맞아도
쌩얼이어도 아름다우심
- 집합
- “너네 빠따 맞아봤어?”
- 감사님 사랑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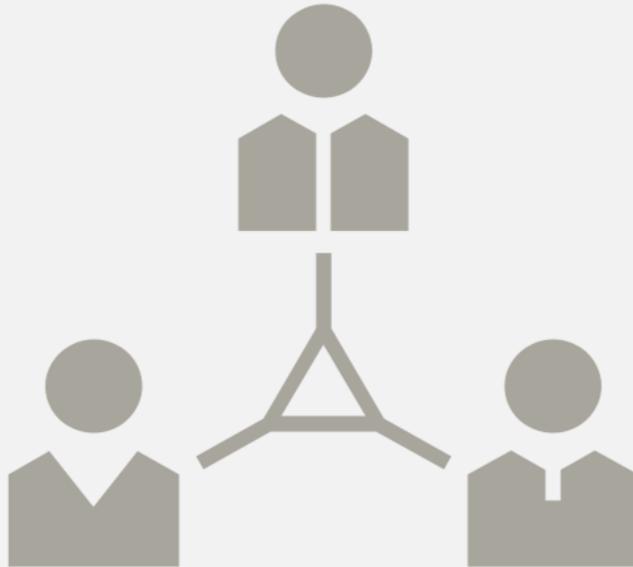


아뚜뚜 딜리팀의 광주 Y 생활(2017.7.30~2017.8.17)

SUN	MON	TUE	WED	THU	FRI	SAT
30 광주 도착	31 광주YMCA소개 한빛4호기탈핵기 자회견 장보기	1 금남로 라운딩 널서리 교육 광주극장-불온한 그대 관람	2 선배아띠와의 만 남 518역사탐방(운동 기념관 등)	3 518 민주묘역 참 배 해밀학교친구들과 의 쏘잉 수업 널서리 기획	4 양림동 탐방 폴라리스친구들과 즐거운 세계청년축 제	5 폴라리스친구들과 세계 청년 축제
6 널서리 기획 폴라리스친구들과 체육 활동	7 널서리 기획 및 슈 퍼비전 해밀학교친구들과 영화 택시운전사 관람 감성캠프 기획	8 미얀마어 스터디 널서리 시연 준비 컴퓨터 및 한국어 교육 기획안 구성 장보기	9 미얀마어 스터디 1박 2일 감성캠프 참여	10 1박 2일 감성캠프 청소년 삶 디자인 센터 라운딩 및 강 연	11 광산구 청소년 수 련관 라운딩 시나브로친구들과 널서리 활동 성인지교육 요가수업 세월호 천일 도보 순례	12 생명평화캠페인 (노후원전폐쇄) 무등산 등반 및 계 곡 입수
13 전남대 투어 선배 아띠들과의 만남	14 미얀마 현지분과 세계문화체험연구 소장과의 대화 널서리 기획 일본인 YMCA 간 사의 식사 영화 청년경찰 관 람	15 광주YMCA지역 인턴 최종 보고서 준비 기아타이거즈 야 구 경기 관람	16 지역인턴 최종보 고회 송별식사	17 서울로 고고씽~~	18	19

1. category: Gwangju

빛고을 광주, 3주간 아뚜뚜 딜리의 삶에 터전이 되다!



1. 양림동 문화탐방

광주의 핫플레이스 양림동을 방문하며 유적 투어와
광주 로컬 문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1. 양림동 문화탐방



역사와

1. 양림동 문화탐방



예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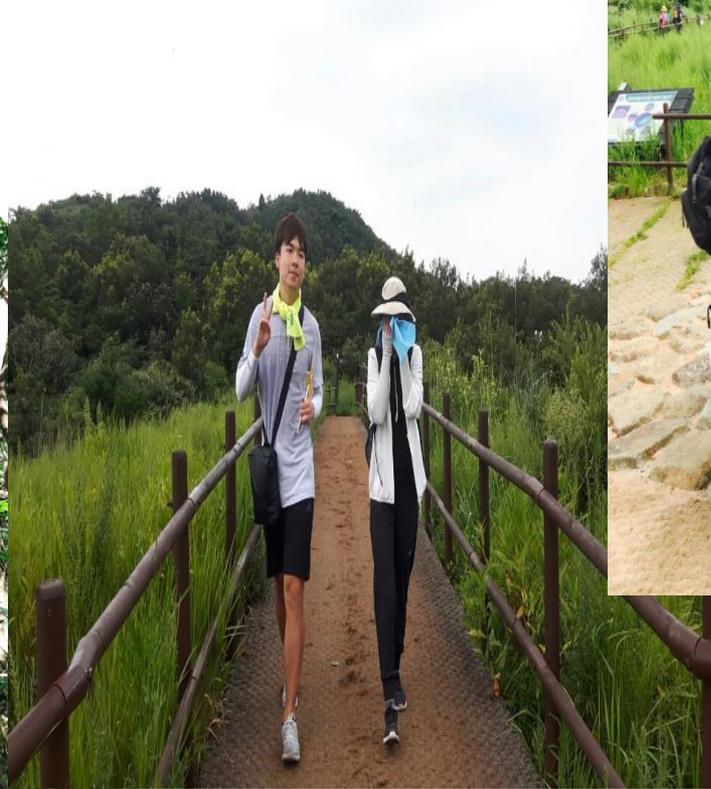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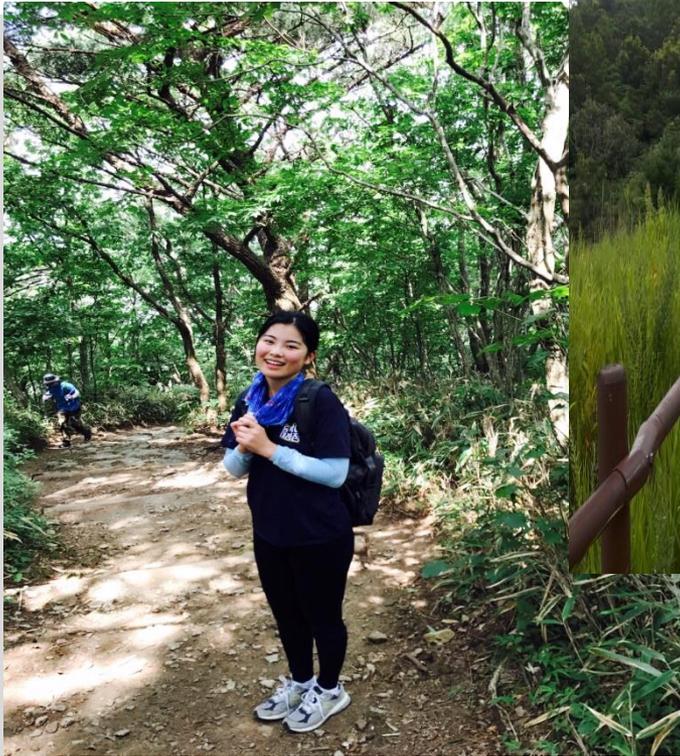
1. 양림동 문화탐방



맛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2. 무등산 등반

그리고 또 다른 날은 어머니의 산이라 불리는
무등산에도 오르고



2. 무등산 등반

계곡에서 시원하게 물놀이도 즐길수 있습니다.



3. 광주 극장

우리 나라에서 가장 오래 된 광주 극장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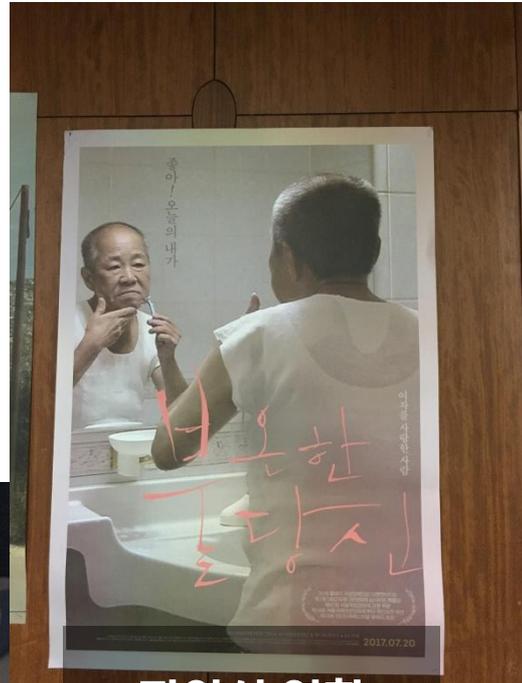
옛스러운 외관과

독특한 인테리어를 지닌 지역 극장이었습니다.



3. 광주 극장

생전 처음 보는
넓은 극장에서



다양성 영화
'불은한 당신'을



즐겁게
감상했습니다.

4. 5 18 역사기행

광주는 정말 독특한 역사와 색깔이 있는 곳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역시나 5.18 민주화 운동이었습니다.



4. 5 18 역사기행

5.18 역사탐방을 통해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가이드분의 설명도 듣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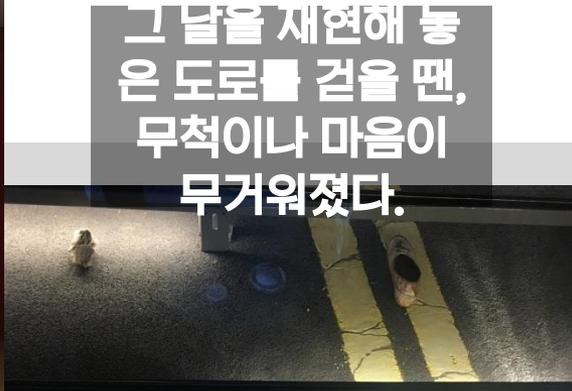


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설명해주신 가이드님!



4. 5 18 역사기행

5.18역사 기념관에서 당시의 처참한 상황과 민주화를 위해 투쟁했던 분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 날을 재현해 놓은 도로를 걸을 땐, 무척이나 마음이 무거워졌다.



4. 5 18 역사기행

이후 5.18 민주화 운동 국립묘지에 가서 머리로만 이해했던 5.18 민주화 운동을 가슴으로 이해하고 기억 속에 새기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5. 먹거리

관광지 이외에도 광주는 맛의 고장이란 별명답게 정말 많은 먹거리가 있었습니다.



한상 푸짐한
송정 떡갈비



독특한 맛을 지닌
청원 모밀



사무국 간사님들과
먹었던 남도 정식!!

5. 먹거리

간사님들과 Y직원분들이 식사를 사주실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 저희가 직접 만들어 먹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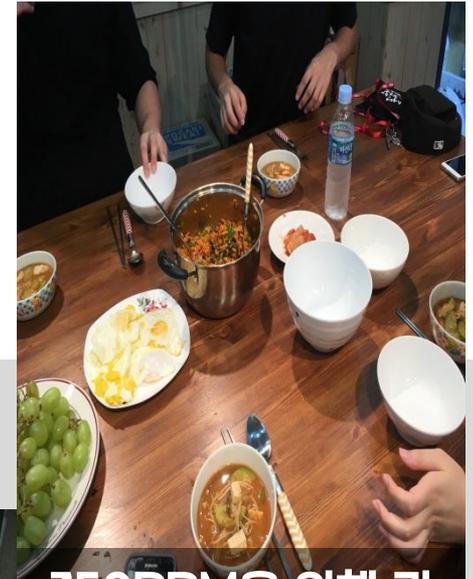


직접 장도 보고



함께 요리도 만들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350PPM을 위해 가
끔씩 채식을 하는 것
도 잊지 않았습니다!
계란은 못 본 척 해주
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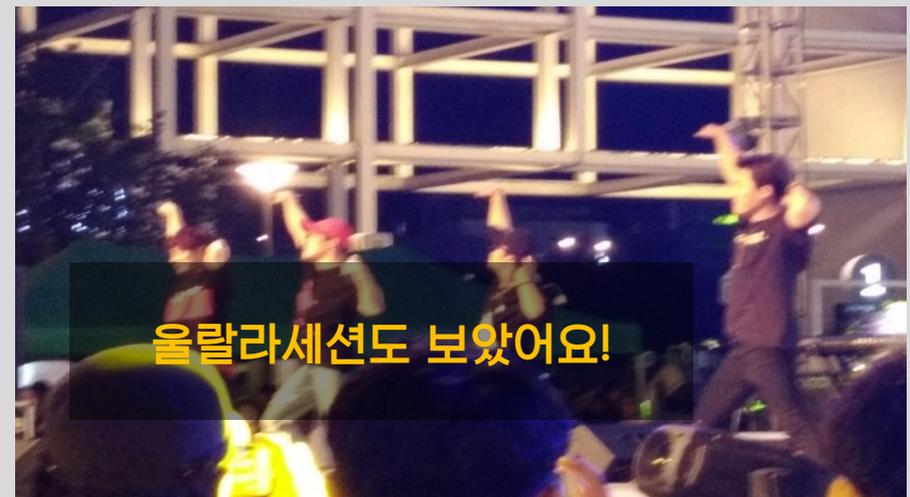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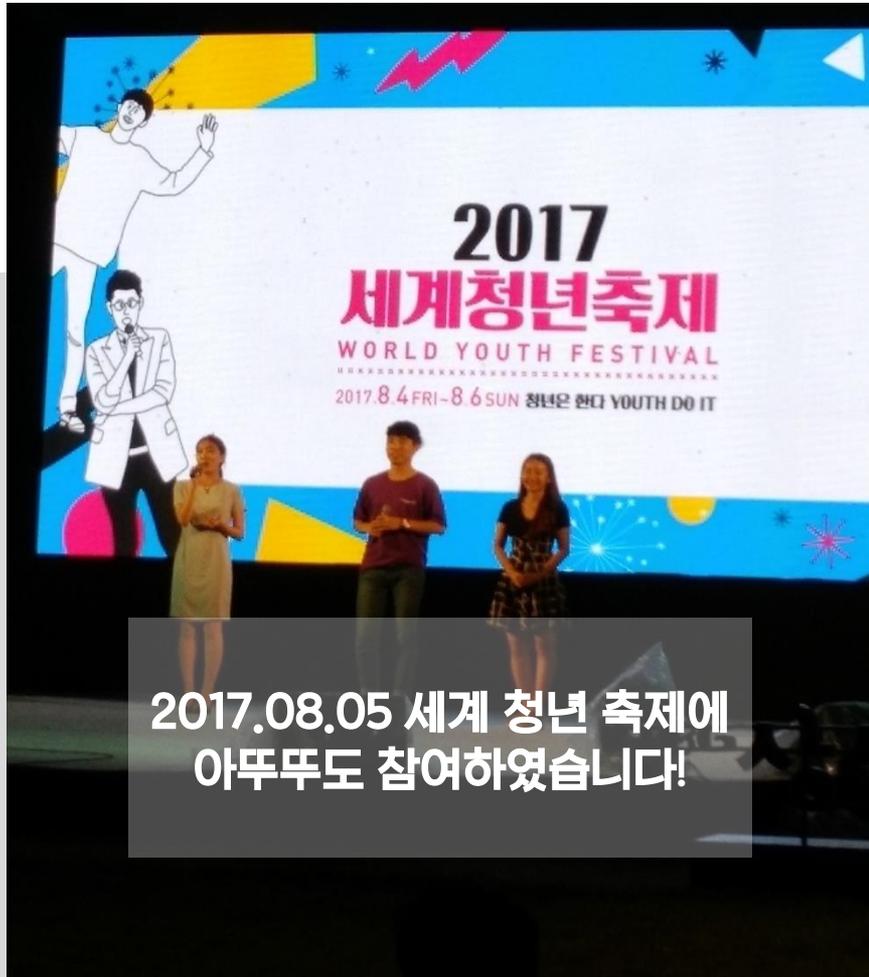
2. category: Youth

청년, 청년과 교류하다!



1. 세계청년 축제 참여

세계청년 축제에 참가하여, 진로 관련 토크 콘서트에도 참여하고 청년 버스킹 공연도 보고 여러 청년들이 직접 기획한 공연들을 즐겼습니다.



1. 세계청년 축제 참여



청년 버스킹 공연 보고,
인스타 이벤트 당첨돼서
받은 아로니아!



좋아하는 사람 janesy33님, jihyun_say님 외 28명

iq430man 청춘 안 되면 될 때까지!! 재도전! 아까 일주일 뒤 해외봉사 떠난다던 라온아띠 팀입니다. 곧 미얀마에 가서 5개월 살게 되는데 낯선 땅에 가는 우리 정든 땅 광주에서 좋은 기운 받아가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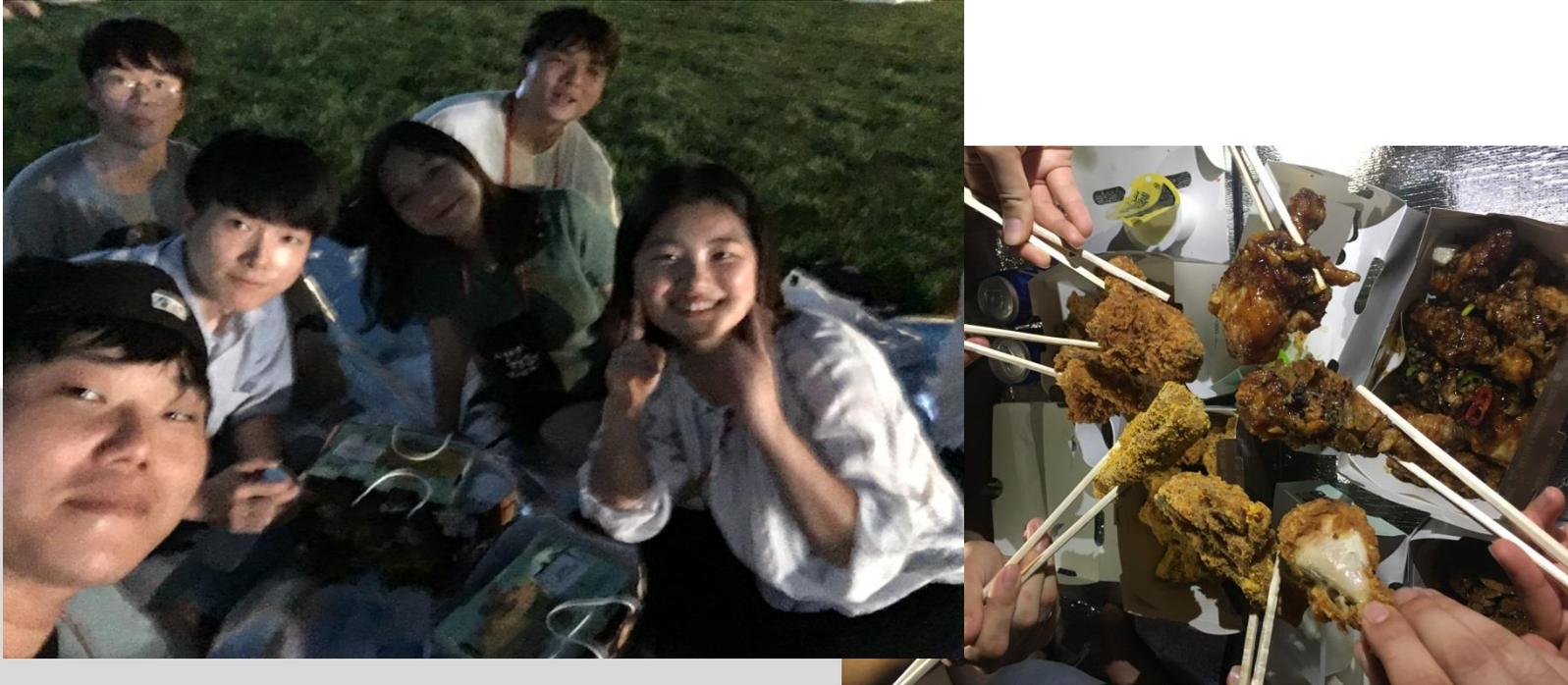
라온아띠X폴라리스

#상상유니브 #상상유니브전남 #ymca #라온아띠 #폴라리스



박나래 디제잉에 신난
현채!

2. 청년 y와 폴라리스와의 만남



아뚜뚜와 청년 y, 그리고 폴라리스와의 만남!
함께 치킨을 먹으며 청년들의 고민거리, 관심 있는 사회 이슈, 진로 등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며 새로운 만남을 가졌습니다.
좋은 곳에서 좋은 사람들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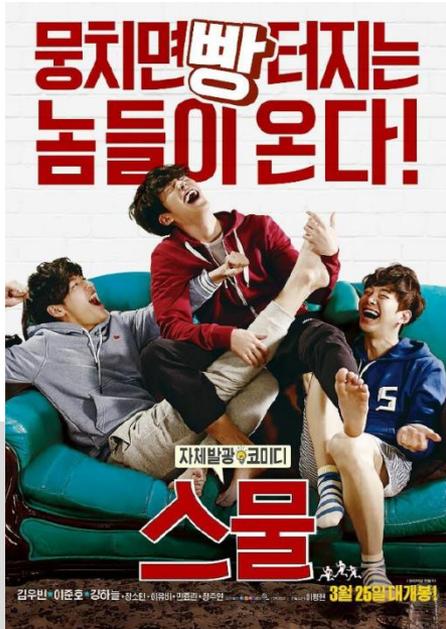
3. 라온아띠 귀국단원들과의 만남



귀국단원들과의 만남을 통해
현지국가 이야기도 많이 듣고 배우며,
현지생활에 필요한 여러 꿀팁들도
많이 전수받았습니다!

또, 귀국단원들과 함께한 삼겹살 파티!
해밀학교 친구들이 직접 재배한 상추로
쌈을 싸먹으며 삼겹살 파티를 즐겼습니다~
(해밀 고마워요♥! 귀국단원들도 고마워요♥)

4. 감성 캠핑 ‘스물’



- ❖ 드레스 코드: 스물 때 유행했던 옷 or 스무 살스러운 옷
- ❖ 각자 스무 살 때 즐거웠던 노래 가져오세요♥
- ❖ 스물로 돌아가고 싶다! 그럼대! 하시는 분들 커먼커먼 come onnnnnn!!
- ❖ 참가비: 무료
- ❖ 준비물: 간단한 세면용품, 노래, 그리고 당신,,♥ 같이 공유하고 싶은 어떤 것이든,!

8.9 저녁 늦은 6시. 광주 시청 앞



아뚜뚜가 직접 캠핑을 기획하고,
포스트를 만들어 홍보하여
광주 y 식구들과 폴라리스 친구들을 초대!
‘스물’이라는 컨셉으로 캠핑을 하며 핫한
밤을 보냈답니다~!

5. 해밀학교 학생들과의 만남



해밀학교 친구들과 함께 한 영화관 나들이&외식!
광주에서 본 '택시 운전사'는 더욱 감명 깊었습니다

또, 해밀학교 친구들과 함께한
“쏘잉”수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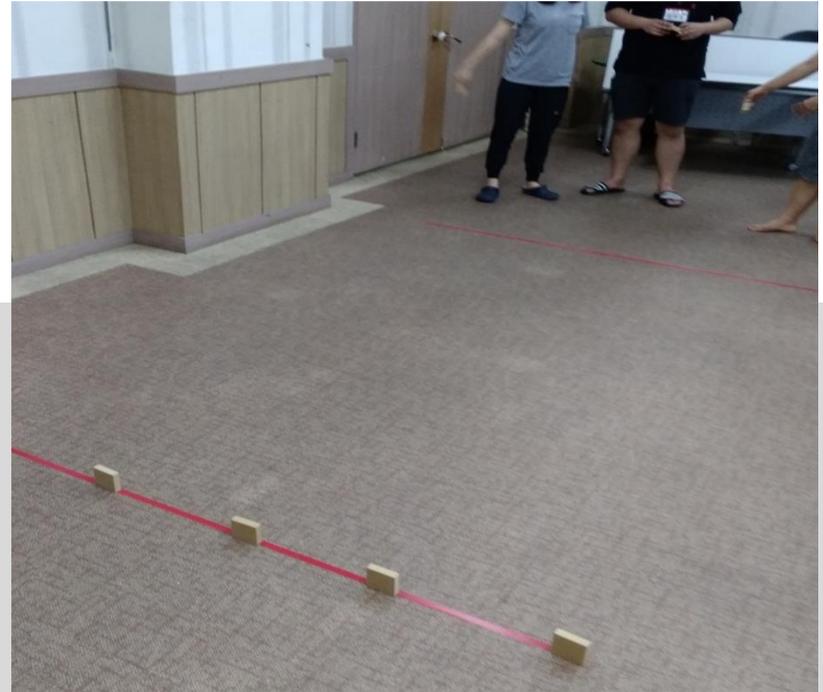
아뚜뚜는 처음으로 프랑스 자수를
해보았는데 재미 뿐만 아니라
실생활에 정말 유용한 수업이었어요

3. category: learning

광주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한 우리!



1. 널서리 활동 교육 및 시연



고효진 강사와 함께 널서리 보육 활동을 배우고 실습하였습니다. 비석치기, 줄넘기 등 신체를 활용하는 놀이뿐만 아니라 색종이로 하트 접기를 익혔습니다. 종이 접기에서 많은 놀이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어요

1. 널서리 활동 교육 및 시연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널서리 활동을 기획하여 광산구 청소년 수련관에서 시연하였습니다. 초등학생 4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 발달 장애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1시간동안 색종이로 하트 접기와 하트 뒤집기 게임을 진행하였습니다. 처음이라 프로그램 진행이 서툴기도 했지만 아띠들을 좋아해주는 친구들을 보면서 뿌듯함을 느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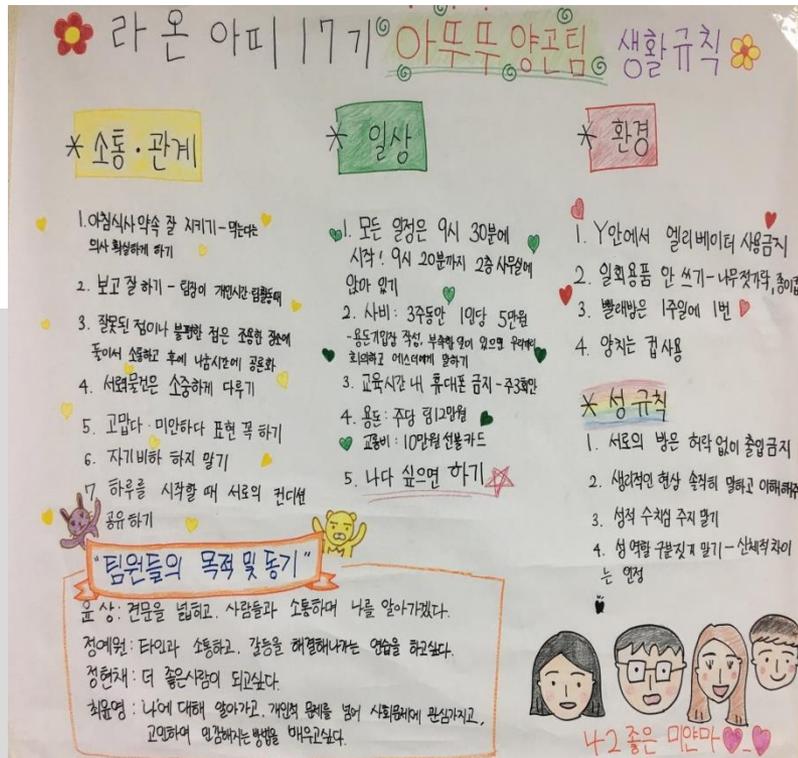
2.성 인지 교육



광산구 청소년 수련관 라운딩 후
3층 청소년 성문화센터에서
넬서리 지도자에게 필요한
성교육 및 성 인지 교육을
받았습니다.

유쾌한 신혜연 센터장의
강의덕분에 평소에 궁금했던
성과 관련된 궁금증에 대한 답변을
얻을 수 있었어요.

3. 팀 규칙 정하기



국내훈련 1달, 그리고 해외 파견 5달의 기초가 될 팀 규칙 정하기!
 소통 및 관계, 일상, 환경 그리고 성 규칙까지 생활 전반에 대한 규칙을 세우고 지키기로 약속하였습니다. 하단에 안 닳은 듯 닳은 캐리커처로 개성뽕뽕

4. 요가 및 운동



해밀학교 이경미강사에게 간단한 요가를 배워 온몸의 유연성을 길렀습니다.
아이들의 피로 회복뿐만 아니라 널서리 활동을 위한 아이템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 유용한 시간이었어요.
주말에는 무진관에서 탁구, 축구, 농구, 배드민턴 등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5.탈핵 기자회견



광주 YMCA 백제실에서 열린 한빛원전 가동 중지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처음 경험하는 기자회견의 현장의 생동감과 더불어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YMCA의 영향력을 느낄 수 있었던 자리였어용.

6. 무등산 탈원전 캠페인



무등산 입구에서 진행한 탈원전 캠페인!
 아피들이 캠페인을 직접 기획하고 진행하였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탈원전의 중요성을 조금이라도 알리려고 노력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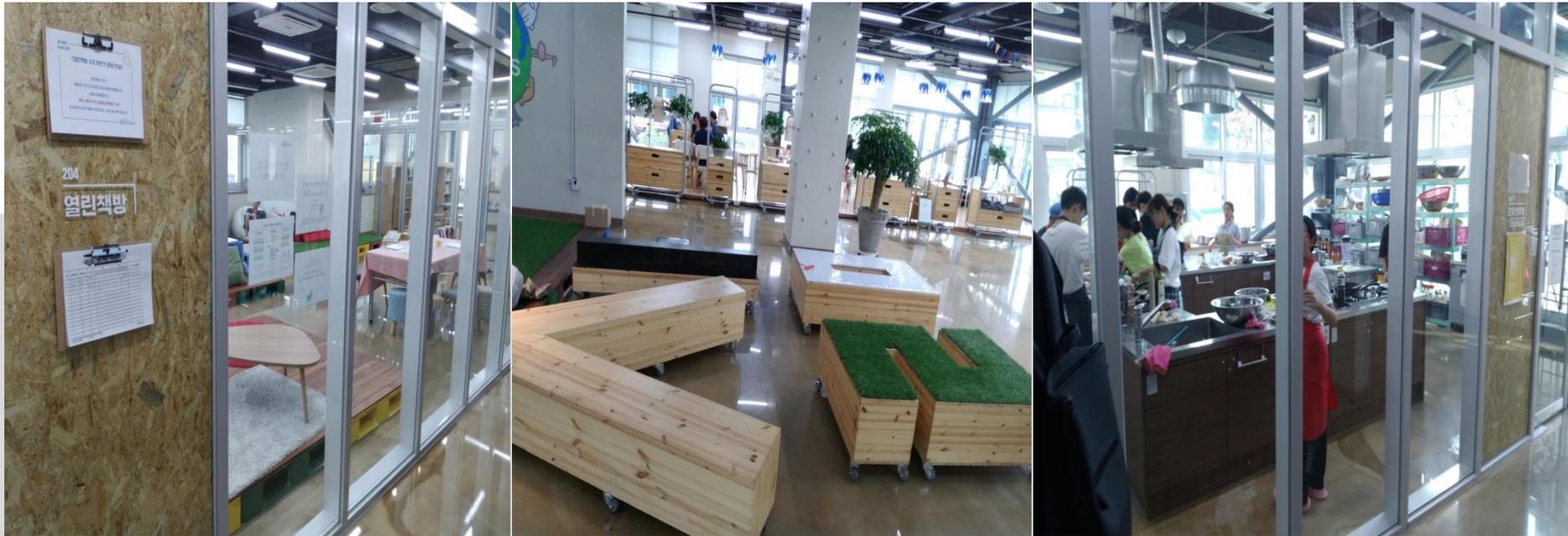
7. 청소년삶디자인센터

금남로에 위치한 청소년삶디자인센터를 방문한 후 이운기 부센터장에게 안보와 통일에 관련된 강의를 들었습니다.

한국사회의 중요한 이슈를 다룬 강의는 2시간이 훌쩍 넘었지만 여전히 흥미진진했어요. 사람들간의 약속을 바꾸기 위해 일반 시민은 투표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해야한다는 부센터장의 말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7. 청소년삶디자인센터



청소년삶디자인센터는 이용자 중심으로 디자인된 건물로 곳곳에 다양한 시설이 있었습니다. 디자인센터는 타 정부기관과 달리 친근감과 편리함을 우선으로 설정하였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활동 후기〉



윤영: 광주 y에서의 활동은 ‘지역’에 대해 좀 더 공부하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광주라는 도시의 특색에 맞게 5.18 역사탐방, 양림동 문화의 마을을 탐방하며 광주에 대해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 제일 좋았던 것 같다. 또 내 또래 청년들과 만날 기회가 많아 매우 좋았다. 요즘 20대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에 대해 스스럼없이 얘기하며 난장토론을 할 수 있었고, 여러 가지 주제로 다양하게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좋았다.

국내훈련을 하면서 느낀 점은 ‘우리 팀이 자율성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었다. 자율적으로 먼저 일정을 확인하고, 준비물을 꼼꼼히 체크하는 자세를 좀 더 갖출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마지막으로, 광주 y 식구들이 아뚜뚜 팀을 너무나도 잘 반겨주고 챙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광주 y의 생활은 정말 배운 것도 많고, 느낀 것도 많은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현재: 새로운 지역, 새로운 가치, 새로운 지식, 새로운 방식. 광주지역 훈련은 여러가지 새로움을 배우는 시간이었다. 낯설고 관심이 없다는 이유로 외면했지만 절대 외면해서는 안 되는 역사와 사회적 이슈들. 광주Y는 이런 역사와 사회적 이슈를 자연스럽게 재밌게 받아들이고 또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었다. 솔직히 활동 전에 광주에 왔을 땐 좋았던 기억보단 안 좋은 기억이 많았다. 하지만 이젠 그때의 안 좋은 기억들을 덮고도 남은 만큼 행복하고 즐거웠던 추억이 많이 남았다.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많은 행복을 알려주어서 이곳 광주와 YMCA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

<활동 후기>



상: 추적추적 내리는 비가 이제는 차갑다. 가을이 오고 있나 보다. 시간이 흐른다는 사실은 무언의 이별 같다. 그 흐름은 시곗바늘의 숫자 1이 2가 되고 2가 3이 되는 것처럼 너무나 자연스럽게. 언젠가 한 번 살아보고 싶었던 광주라는 도시와도 이제는 잠시 이별해야 한다. 나의 시간이 어느새 흘렀고 그 흐름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어느 때라면 금방 잊혀질 순간이겠지만 조금은 애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지금은 떠나지만 다시 어딘가에 도착해 새로 시작을 하고 또 떠날 것이다. 흘러가는 시간을 지금 이 순간에는 붙잡고 싶다.



예원: 라온아띠 국내 훈련을 계기로 광주에 처음 방문했다. 그동안 나에게 광주는 518민주화 운동으로만 알려진 동네였다. 하지만 이번에 몇 주 동안 살아보면서 광주 그 자체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다. 내가 느낀 바로는 광주는 기억하려는 도시다. 매일 오후 5시 18분 금남로에서 울리는 임을 위한 행진곡은 수십 년 전 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518민주화 운동을 기억한다. 옛 전남도청 옆의 노란 리본들은 몇 년 전 세월호 사건을 기억한다.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볼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다. 또한 내 또래 대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자리는 정말 즐거웠고 지역에 상관 없이 우리 모두의 관심사는 비슷하다는 것을 느꼈다. 양림동, 금남로 등 광주의 변화가를 돌아다니며 예쁜 가게들을 구경하는 것도 재밌었다. 특히 쇼핑하고 싶은 게 많아서 참기가 힘들었다. 광주 무등산 중머리재에서는 산이 나를 안아주는 듯한 포근함을 느끼며 광주에 좀더 정을 느낄 수 있었다. 이 모든 추억들은 광주 y 간사님들과 내가 인연을 맺은 사람들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서울에 갈 때 나 또한 광주에 대한 긍정적인 기억을 간직하고 갈 수 있을 것 같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